

차가움이 품은 뜨거움 금속에 새긴 섬의 빛깔

제주금속공예가회 창립
종진 등 7명 작가 참여
내달 18일까지 첫 전시

신라시대의 화려한 금관과 장신구는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빼어난 수준을 보여준다. 쇳물을 녹여 술과 보습을 제작하는 제주도 전래 불미공예는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노동의 가치를 새기게 만든다. 제주에서 신라까지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불과 더불어 발전해온 금속공예의 오랜 전통

을 떠올리며 이 지역의 금속공예가들이 뭉쳤다. 제주시 아라동 삼현갤러리에서 창립전을 열고 있는 제주금속공예가회다.

제주금속공예가회는 제주에서 금속을 재료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만의 정서를 담고 정보를 나누는 마당을 만들자며 꾸려졌다. 금속공예의 개념을 소개하는 작품에서 금속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생활소품, 장신구 등이 전시장에 나왔다.

그동안 꾸준히 개인전을 가져온 이광진의 '광풍의 제주', 고난영의 '봉황', 권오균의 '동행', 오자경의 '봄이 오면 나는'을 비롯 김태우의



오자경의 '봄이 오면 나는'.

'봄이 왔나 봄', 나경화의 '꽃잎이 날린다', 이창열의 '주전자' 등이 출품됐다. 낫쇠, 은, 백동, 적동, 철보, 현무암 등 여러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새봄에 첫발을 떤 창립전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주금속공예가회 초대 회장을 맡

은 이광진 제주대 교수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제주에서 처음으로 금속공예 작품만으로 전문 그룹전이 열리게 되었다"며 "다음 전시에는 더 많은 금속공예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5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전신희기자

제주섬에서 듣는 섬의 언어, 섬의 문학

日 오키나와 소설가
사키야마 다미 특강
이달 27일 문학의집

섬의 언어에 천착해온 일본 오키나와의 여성 소설가가 제주를 찾는다. 제주문학의집과 제주작가회의 초청으로 이달 27일 오후 5시 제주문학의 집 북

카페에서 문학특강을 펼치는 사키야마 다미 작가다.

사키야마 작가는 잡지 '월경광장'을 간행하며 오키나와를 사상의 기점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문화·사상적 유희와 연대를 시도해온 소설가다. 오키나와 이리오모테섬(西表島) 태생으로 이후 미야코 섬(宮古島), 오키나와 본섬 고자시에서 살았고 다시 고향 이리오모테 섬에 머물다 이시가키 섬

(石垣島)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며 지냈던 작가는 자연스레 섬을 깊이 살피게 되었고 오키나와 언어의 다양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섬을 모티브로 여러 편의 소설을 창작했는데 작가 특유의 '섬 말'이 난무하고 청각적인 묘사가 도드라진다. 미군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나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조선인 위안부를 다루는 등 오키나와에 존재하는 또 다른 타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작품도 발표해 왔다. 지난해에는 '달은, 아니다'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다.

사키야마 작가는 이번 특강에서 '나의 문학과 섬 말'을 주제로 문학의 근거지인 '섬'의 장소성과 '섬 말'에 대한 사상과 방법론을 전할 예정이다. '달은, 아니다'의 역자인 조정민 부경대 교수도 이날 '사키야마 다미의 문학세계'란 주제 아래 사키야마 작가 고유의 언어관을 담지한 '섬 말'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서의 섬'이 가지는 문학적 의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청중들과 나눈다. 문의 070-4115-1038. 전신희기자

문화가 쏘다

이아 생활예술아카데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에서 2019년 생활예술아카데미 '채움 이아'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부터 무료로 진행되는 생활예술아카데미는 ▷제주도 풀과 나무로 차와 간식 만들기, 나를 찾는 한 줄 글쓰기 ▷어린이 대상 미디어아트 워크숍 ▷나를 다시 꿈꾸게 하는 글씨-붓펜으로 만나는 캘리그래피 ▷아트 토이 워크숍 ▷미술로 바라보는 시선, 미술로 이해하는 삶으로 짜여졌다. 접수는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이아 홈페이지(www.artspaceiaa.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1인당 1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4)800-9336.

전통시장 찾아 국악 공연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지회장 홍송월)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해 시장 고객유치와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1일 대정오일시장을 시작으로 세화민속오일시장(5월 25일 오후 1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5월 12일 오후 4시, 9월 7일 오후 4시), 동문시장 상점가 산지전(6월 8일 오후 5시), 서귀포항토시장(10월 12일 오후 4시) 등 여섯차례에 걸쳐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고객과 상인 노래자랑, 흥겨운 건강 춤 등도 마련된다. 문의 064)759-3888.

살거스 '직장 문화배달' 사업

제주 지역 다원예술포포먼스 단체 살거스가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문화배달'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돼 직장으로 문화배달을 한다.

'인생은 즉흥이다'라는 이름이 달린 공연은 이달 24일 오전 10시30분 동부소방서 등 도내 소방서 3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각종 재난현장에 대응하면서 심리적 위화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소방대원들을 찾아가는 만큼 관객 참여형 문화공연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문화배달은 평일 외부 문화활동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근무지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문의 064)755-8415.

남문서점 오늘 '낭독심장'

제주 남문서점의 4월 '낭독심장'이 23일 오전 10~12시에 열린다.

'낭독심장'은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하고 남문서점이 주관해 1월부터 5월까지 네번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남문서점 2층 강의실에서 펼쳐지는 행사다. 시를 읽으며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선착순 20명에게는 시집을 선물한다. 여성만 신청할 수 있는 시낭독이지만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도 입장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작나무 카페'의 양순진 시인과 '눈가에 자주 손이 갔다'의 이윤승 시인이 초대됐다. 강은미 시인과 첼리스트 지윤씨가 진행을 맡는다. 문의 010-4521-2592.

이번주(4월 23-28일)

무대 & 미술

금빛양상블로 짚어가는 초록 봄날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윈드양상블 기획 공연

금빛양상블로 짚어가는 초록의 봄을 연주한다.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의 '윈드양상블과 함께하는 음악 스케치'다.

이번 공연은 서귀포관악단 목관·금관양상블과 서귀포합창단원들로 구성된 남성중창단이 꾸민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중에서 '젊은이와 처녀가 있다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등을 들을 수 있다.

<공연>
▶윈드양상블과 함께하는 음악 스케치=4월 23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39-7394.

▶제주대 피아노연구부 콘체르토의 밤=4월 23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279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4월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민요패 소리앗, 청월 밴드 공연. 710-7708.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4월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2776.

▶원앙하의 피아노 여행 시리즈 1 '고전에서 낭만으로'=4월 25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010-2077-4908.

▶양우형 피아노 독주회=4월 25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932-7679.

▶디어아일랜드의 '제주감성'=제주아트센터 문화가 있는 날 공연. 4월 26일 오후 2시. 728-1509.

▶제주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찬란'=4월 26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710-7656.

▶제주대 관악연구부 정기연주회=4월 26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2790.

▶제주피아노두오협회 정기연주회=4월 2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8671-0752.

▶문화가 있는 날 '클래식 기타양상블 비트'=4월 27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문화도시 서귀포 2=4월 28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연극 '4통3반 복층 사건'=4월 28일까지 토·일요일 오후 3시와 7시 예술공간 오이. 010-5755-9220.

<전시>
▶제3회 새우란전=향란회 주최 4월 23-24일 제주학생문화원. 010-3639-3479.

▶송용 초대전=4월 23-5월 5일 현인갤러리. 747-1500.

▶한라일보 창간 30주년 '한라에서 백두까지'=4월 25일까지 문예회관. 750-2291.

▶제주의 사계절 꽃=4월 2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안서조 문인화전=4월 26일까지 KBS제주 전시실. 010-8660-2244.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작품전 '백록담전'=4월 27-5월 2일 문예회관. 710-7632.

▶제18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4월 27-5월 2일 문예회관. 710-7633.

▶안버림연구소 개인전=4월 27-5월 2일 문예회관. 710-7633.
▶경기·제주서화교류전=제주 월봉묵연회 등 주최 4월 28일까지 경기 수원미술전시관. 031-243-6056. 전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달 23일 단원들로 구성된 목관·금관 윈드양상블 기획공연을 펼치는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축

당 선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회장



최용민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장, 풍년농수산 대표)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안군민회

축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회장



최용민
(사)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펠리시아호텔

축

당 선

농협중앙회 이사



김진문
(조천농협조합장, 조천초등학교 총동창회 직전회장 43회)

농협중앙회 이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천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흥운 외 전동문일동

축

선 임

동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장 및 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



문원배
(본회 고문)

동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장 및 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 선임(재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임원 일동